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421>

JCCT 2023-9-52

라캉 정신분석과 언어의 노동

Lacanian Psychoanalysis and The Labor of Language

이 동 석

Lee Dong Seok

요약 현대사회 이전의 인간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런 사고의 시대를 겪은 인간은 자본주의로 존재를 편입시킨다.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가를 묻는다. 그 후, 우리는 현대사회를 맞이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욕망하는 주체에 대한 숨겨진 존재의 물음을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숨겨진 존재는 언어에 의해 은폐된 존재이다. 이것을 필자는 언어의 노동으로 진단하고 문제의식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언어의 주체이면서 언어 노동의 주체이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1901~1981) 정신분석은 언어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주체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의 노동의 남은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윤리가 있다. 본문에서는 언어의 노동에 저항하는 주체에 대해 숨겨진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주요어 : 라캉, 언어, 노동, 데카르트, 안티고네, 정신분석

Abstract Humans before modern society were concerned about "what kind of being the humans are." Human beings who have gone through this age of thinking incorporate their existence into capitalism. Marx (Karl Heinrich Marx; 1818~1883) asks 'what kind of job do you live in?' After that, we get into the modern society, in which human beings ask themselves questions about the hidden existence of the subject of desire. A hidden being is an existence concealed by language. We will diagnose this as language labor and develop a critical mind. We are both the subject of language and those of language labor. Jacques Lacan(Jacques Lacan;1901~1981)'s psychoanalysis pays attention to the subject who escapes from the labor of language. In the remaining place of language labor, there are invisible ethics. In this text, we'd like to reveal the hidden meaning of the subject who resists the labor of language.

Key words : Lacan, Language, Labor, Descartes, Antigone, Psychoanalysis

I. 서론

우리는 언어와 함께 거주한다. 우리의 실제 거주 공간은 집이다. 그러나, 집 이전에 우리에게 언어가 있다.

우리는 언어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정신병 환자도 그들만의 언어가 있다. 자크 라캉은 언어에 누구보다도 주목하였다. 필자가 “시니피앙과 라캉 정신분석 -반복과 반영의 나르시시즘 - [1]”에서 언어의 운동성에

*정회원, 국제대학교 상담심치료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5일

Received: July 31, 2023 / Revised: August 21, 2023

Accepted: Sept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vaiolee9@hanmail.net

Dep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okje Univ, Korea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언어는 무의식의 표면과 내면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주체를 표현한다. 또한 발화와 동시에 언어에 포섭된다. 라캉은 인간을 말하는 존재로 본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자아는 존재의 집이 아니다”고 했다. 라캉은 초기 프로이트의 이론에 주목하면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상징계로 연결한다. 여기에서 라캉의 유명한 격언이 등장한다.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 라캉의 격언은 기표(시니피앙)와 기의(시니피에)의 미끄러짐으로 이어진다. 라캉은 기표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기표를 놓치는 주체에 대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집요하게 탐색한다. 라캉은 빠흘레트흐(parlêtre)는 parle와 être를 합친 조어를 만든다 [2].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빠흘레트흐는 ‘말하다’와 ‘존재’를 합성한 말이다. 따라서 인간은 말을 하면서 존재하는 주체가 된다.

현대사회 이전의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집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런 사고의 시대를 겪은 인간은 산업화된 사회로 존재를 편입시킨다. 다음 물음이 등장한다. 마르크스는 ‘인간에 대해서 그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는가’를 묻는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위기의 현대사회를 맞이한다. 인간은 스스로 욕망하는 주체에 대한 숨겨진 존재의 물음을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숨겨진 존재는 언어에 의해 ‘은폐된 존재’이다. 필자는 언어에 ‘은폐된 존재’를 현대사회의 소외이자 언어의 노동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우리는 언어의 주체이면서 언어의 노동의 주체이기도 하다. 라캉 정신분석은 언어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신분석의 종결로 이끈다. 라캉 정신분석은 언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네 가지의 문제로 언어의 노동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라캉 정신분석에 있어 언어의 노동과 거주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두 번째는 언어의 노동에 대해 진단한다. 세 번째는 언어의 노동의 경계에 있는 안티고네를 등장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코기토(cogito, 나는 생각한다)를 분석하고 라캉이 언급한 욕망의 유죄에 대해 말하겠다. 언어의 노동의 최악의 변명은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란 것이다..

II. 언어의 노동과 거주의 연구배경

인간은 신체활용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라캉이 선언한 ‘성관계는 없다’는 언급은 ‘우리의 신체는 단순한 몸에 불과하다.’라고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신체가 한계인데 성차의 구별은 라캉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가 있다. (Y a d’l’un)”는 것은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성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너는 주인의 지배를 기대하고 있다.’ 지배는 우리의 리비도를 지배하는 신체이다. 우리는 신체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의 노동을 멈추질 못한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대한 선구자였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를 이 세상에 제시했다. 뒷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오하게 다룰 것이다.

우리는 언어의 노동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언어는 욕망의 불만족을 유발한다. 라캉은 우리가 언어에 기대하는 것을 전복시킨다. 기대란 우리들 통념 속의 기대이다. 라캉적 사고로 보면 타자에 대한 기대이다. 이것을 대타자의 주이상스를 섬기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대타자에게 나의 언어를 재물로 바치는 것만큼 짜릿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대타자의 지배와 주이상스를 등치시킨다. 라캉은 이것을 ‘기표(시니피앙)의 과다(plethora)’으로 표현했다.

라캉 정신분석은 이 지점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한다. 라캉은 ‘텔레비지온(Television)’에서 말한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거주합니다.[3]” 라캉의 언급은 매우 역설적이다. 일반 통념으로,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 우리는 언어에서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거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언어 노동의 주체이다. 언어 노동이 완성되면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실체는 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세르지오 벤베누토(Sergio Benvenuto; 1948~)는 “라캉은 항상 즉흥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는 우리에게 언어의 노동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한다 [4].”고 말한다.

라캉은 그의 정신분석 교육 세미나에서 정신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는 분석주체로서 말했다. 라캉은 세미나 자체가 주이상스의 주체를 표방한다. 라캉은 이와 관련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합니다 (ça leur fait quelque chose) [5].”고 말한다. 라캉은 언어의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시’를 통해 제시한다. “시는 기표

의 그물망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다.” 기표는 개미와 같이 주위를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를 잘 보지 못한다. 라캉의 기표는 그러한 것이다. 우리를 침식하는 것이다.

라캉은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6].”고 했다. 위 답화는 아주 난해하다. 없는 곳도 있고, 앎는 곳도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캉이 주목한 지점은 거주의 장소이다. 그는 정신분석을 실존적인 차원으로 보여주려 한다. 그렇지만, 그것에서 다시 벗어나려는 시도도 함께 보인다. 라캉의 언급은 데카르트의 코기토 ‘cogito’에 대한 역설이다. 주디스 버틀러(Butler Judith; 1956~)는 “내가 담화에서 제공하는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은 이 살아있는 자아를 완전히 표현하거나 전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은 주는 대로 빼앗기고, 내 삶의 시간과 같지 않은 담론의 시간에 의해 중단됩니다.”[7] 고 말한다. 그녀는 계좌를 빗대어 의미 있는 주장을 펼친다.

제가 누군가에게 계좌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계좌의 수취인이 실제 또는 상상적, 또한 이 설명이나 자신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내 계정으로 설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계정을 양도하고, 보내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

버틀러는 언어의 노동을 교환의 문제까지 확장한다. 주체의 장소와 사고는 혼재된다. 주체의 계정은 언어의 교환으로 박탈당한다. 따라서 언어는 항상 사라짐을 수반한다. 라캉은 이것을 아파니시스(aphanisis)라 주장했다. 언어는 소외의 주체를 양산한다. 박탈과 소외는 동일선상에 있다. 우리는 계정 전의 단계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원래 주체는 몰래 드러나 있는 것이었는데, 말화와 동시에 사라져 버린다. 이것을 윤리로 전환시켜 보자. 윤리는 이미 몰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실제 윤리는 무관심인데,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윤리가 폭력으로 변형된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선악의 저편에서 아래의 언급을 한다.

우리 귀는 이미 나쁜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 그의 양심은 모든 아니오 와 심지어 단호하고 가혹한 예에도 떨리고 고통과 같은 것을 느끼도록 훈련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성급한 가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확실성에도 매력이 있습니다[9].

“우리 귀는 이미 나쁜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니체의 발언은 라캉의 충동 개념이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세미나XI’에서 응시(시판 충동)와 목소리(호언 충동)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귀는 매우 관념적이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의 노동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을 볼 수 있고, 아는 것만을 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언어의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소크라테스의 언설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결국 모르는 계정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언어의 노동을 통해서 ‘나는 나를 말할 수 없을 뿐이다.’라캉은 묻는 질문이 있다. 너는 너의 욕망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충실한 적인 있는가?이다.

필리페 줄리안(Philippe Julien; 1926~2011)은 충실하지 않는 주체의 주관화에 대해 적절한 표현을 한다. “객관화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반대입니다.”[10] 프로이트는 이것을 숨겨진 기이함으로 묘사했다. 기이함(Das Unheimliche), 어떤 것과 조우하는 기이함을 묘사한다. 그것은 숨겨졌던 것으로 남아있다. 라캉은 이것을 das Ding(물)로 표현한다. 다음 장에서는 언어의 노동을 윤리적 관점에서 진단할 것이다.

III. 언어의 노동의 윤리와 진단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1847~1913)은 간략하게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는 일입니다[11].” 비트겐슈타인의 표현처럼 우리는 단순히 언어의 노동을 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Meinecke, Friedrich; 1862~1954)는 이것을 꼭두각시라 묘사한다. 그는 “역사에 대한 격언과 스케치”에서 주장한다. “세계사의 독립된 개인들은 단순히 세계정신의 꼭두각시일 뿐이다[12].”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라캉의 상징계는 꼭두각시의 연속이다. 라캉 정신분석의 주체도 아주 단순하게 여전히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존재는 항상 그들 자신을 망상함으로써 존재한다. 철학자 고틀로프 프리게(Friedrich Ludwig Gottlob Frege; 1848~1925)는 ‘아침별과 저녁별은 동일하다.’고 말한다. 프리게의 언설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잘 대변해준다.

라캉에게 의미와 발화는 다르다. 언어보다 더 비인간적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실천이성비판에서 ‘marionette’란 표현을 사용한다. 칸트는 “자유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13].”고 하면서 윤리의 높은 능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역설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벤베누토는 칸트의 도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리법의 보편적 타당성은 ‘병리학적’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정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윤리적 명령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고 말합니다 [14].

칸트 윤리의 무관심과 라캉 정신분석의 ‘無’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라캉과 칸트의 차이는 라캉의 윤리는 초월적이며, 상상의 (imaginarius)가 아니라는 지점이다. 라캉은 칸트의 철학에서 ‘無’(공백)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파구는 칸트가 도덕적 명령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됩니다. 실천적 이유의 필요성을 부과하는 한 의무는 무조건적인 “해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 분야의 중요성은 칸트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거기에 남은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15].

칸트가 말하는 ‘목적의 왕국’은 천사가 써 준 것도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분석주체는 라캉 정신분석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왜 당신은 나에게 대해 탐색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라캉 정신분석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분석주체는 이미 자기진단의 칸트의 목적의 왕국’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라캉 정신분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준다. 아무것도 안 준다면 무엇을 주는가? 벤베누토는 이탈리아 정신분석가 엘비오 파치넬리(Elvio Fachinelli; 1928~1989)를 말하면서

라캉 정신분석가에 대해 저속한 비유를 예로 제시한다. “파치넬리는 환자가 매우 자주 분석가를 창녀와 동일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석가들도 넓은 의미에서 유료로 예로틱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캉에게 분석가는 개똥같은 존재이고, 파치넬리에게 분석가는 시급을 받는 매춘부입니다 [16].”

우리 모두는 라캉 정신분석 상징계의 빛을 떠안은 존재이다. 상징계의 빛에서 벗어나는 것은 환상을 버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단순히 따라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젝(Slavoj Žižek; 1949~)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17].” 라고 말한다. 지젝의 주장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몰라도 되는 것일까?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앞장에서 필자가 제기한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로 있는 주체, 방황하는 주체를 참고하자.

마틴 슈테(Martin Schulte; 1959~)는 “법 담화에서의 무의식의 법칙: 프로이트와 라캉 이후의 정신분석적 법 이론의 기본 노선”에서 꼭두각시의 문제를 미장센에 비유한다. “신화적인 원초적 공식과 금지의 미장센에 대한 매혹된 관중으로 행동하는 것 [18].” 그에 따르면 우리는 그저 방관자이고 관중이다. 우리는 관중인데 책임이 없는 관중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시되고 모르게 된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막연히 비판을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상징계의 실존과 아주 단순한 실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수도 (Das Kapital)에서 “이데올로기의 정의”에서 막스는 ‘그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그것을 합니다’고 언급한다. 지젝은 이 구절을 조금 변형하여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19].”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보인가 이단자인가?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기를 “각각의 사람들은 그 명령을 바보와 이단자라고 선언합니까?”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다. 독일 철학자인 피터 슬로터다이크(Peter Sloterdijk; 1947~)는 자신이 경멸하는 것을 비웃으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 의식의 소모적인 강요에 대한 ‘냉소적 이성’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크리스토프 멘케(Menke, Christoph; 1958~)는 ‘자율과 해방’에서 말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때 이미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20].”

우리는 마르크스의 유행 속에 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노동은 마르크스의 노동과 라캉의 언어의노동이 합성되어 있다. 라캉 정신분석에서 언어의 노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충동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문명속의 불만’에서 에로스와 아난케 (Ανάγκη, Anankē, 숙명)를 리비도를 통하여 배치시켰다면, 라캉은 이것을 진화시켜 근본적인 응시와 목소리의 영역인 언어의 노동의 충동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장은 언어노동에 굴복하지 않는 안티고네의 행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V. 언어의 노동의 경계에 위치한 안티고네

라캉의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Ⅶ’에서 ‘무로부터의 출발 (ex-nihilo)’를 언급한다. 라캉 정신분석의 출발은 텅 빈 욕망으로 가야 하는 주체로 구성된다. 이것이 ‘ex-nihilo’이다.

언어 밖에서는 그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산 사람의 존재는 선과 악, 운명, 타인에 대한 결과 또는 자신에 대한 감정의 본성에서 그가 품고 있는 모든 것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순수함, 그가 살아온 사극의 특성으로부터의 존재의 분리는 바로 안티고네가 집착하는 한계 또는 ex nihilo이다 [21].

안티고네 (Antigone)는 아주 단순한 행위를 보여준다. 안티고네가 부각되는 것은 언어의 노동에 속하지 않는 집합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하는 곳과 존재하는 곳의 언어 속에는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망상을 가지는 마리오네트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의 행위는 왕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언어의 노동을 빌려와서 그녀의 행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대리인 역할을 포기한다. 안티고네는 자신을 설명하는 한계를 일찌감치 터득하고 있었다. 버틀러는 ‘나’에 대한 설명의 한계를 설명한다.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내 삶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러티브는 내 것이 아닌 것, 또는 내 혼자가 아닌 것에

의해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나 자신을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2].”

버틀러의 관점에서 안티고네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그녀의 욕망에 충실 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로 보인다. 그녀는 계통 발생적인 혈통에 집착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여전히 하고 있다는 방식에서는 일률적이다. 조안 콕젝(Copjec Joan; 1946~)은 혈통과 위반의 법을 대치시킨다.

그녀에 대한 그의 가치는 그가 한 일이나 그의 자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정당화하기를 거부하고, 그녀가 그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행위를 승인하기 위해 어떤 권위도, 어떤 신성함도, 폴리스의 어떤 법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23].

그녀는 끊임 없이 저항하는 주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테베의 왕인 크레온은 자신의 언어의 노동에 사로잡힌다. 크레온의 귀는 이미 열려져 있었다. 이런 역사적 요소를 갖는 충동은 중세시대의 왕의 신하들의 이간질에서 쉽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조치는 사형이다.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박해와 나를 대치시키면서 박해로 대체된 안티고네를 말한다.

나를 박해하는 것이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에게 행동하게 하며, 나를 박해하는 순간에 존재론으로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나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고발 대상으로서 행동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비난 안에서 먼저 형성됩니다 [24].

나를 대신하게 되는 박해의 ‘나’는 심각한 윤리적 순간을 제공한다. 버틀러는 말하기를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가 다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5].” 고 말한다. 라캉은 ‘양코르 세미나 XX’에서 언어의 기능에 대해 윤리적 입장을 취한다. “더 엄격한 사용 전에 언어의 기능은 무엇보다 먼저 경계하는 것입니다 [26].” 그는 에크리 (ÉCRITS) 에서 이미 언어의 효과에 언급했다.

언어의 효과는 그 원인을 주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통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분열시키는 원인의 지령이를 자기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의 원인은 기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실제 주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27].

크레온은 언어 효과의 대변자이다. 국가의 반역자인 원인을 안티고네에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이 작동을 거부한다. 라캉은 “종교의 승리”강연에서 실제에 대해 언급한다. “실체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ce que ne marche par) 프로는 타자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아마추어는 가지지 못한 지식을 사용합니다 [28].”

안티고네가 프로였다면 그녀는 생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는 바보인가? 블레즈 파스칼 (Blaise Pascal; 1623~1662)은 이런 바보를 대변한다. “바보에게는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La cul à ses raisons que la Raison ne connaît pas)” 바보에게는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이성을 통해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속되는 한 윤리는 이성의 폭력 속에 감춰질 것이다. 라캉은 ‘또 다른 에크리 (Autres écrits)’에서 ex-nihilo를 다시 언급한다.

창세기 텍스트의 본질적인 것은 ex-nihilo에서 기표 외에는 아무 것도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명합니다. 단점은 존재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말만이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

안티고네는 두 법 사이에서 고전하였다. 그녀에게 있어 ex-nihilo는 또 다른 운명이고 실존의 출발이었다. 장 폴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는 ‘가족바보 (L’idiot de la famille)’에서 “아버지에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30].”고 말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프스는 사르트르의 아버지를 대변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다른 죽음으로 운명을 선택하였다. 안티고네는 정신분석의 경계에 있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에게 승리하고 싶었던 것인가?

법학자인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이기고 싶다면 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안티고네가 정신분석의 경계에서 사투했다면 데카르트는 정신분석의 품 안에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데카르트에 대해 탐색할 것

이다.

V. 코기토와 욕망의 유죄에 대한

연구결과

데카르트는 사유에 대한 포기를 단념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는 계속 사유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유의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몇 개인가? 이다.

라캉은 데카르트에 대해 반응한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자기 것으로 언급합니다.” 2장에서 논의한 라캉으로 돌아가자.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 라캉의 주체는 존재와 사고의 일치 속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와 사고 사이의 불확실성에서 출현하는 것을 암시한다. 발화의 주체는 적어도 한 개가 아니다. 마리아 블라스카(Maria Balaska)는 이러한 사고를 위조로 평가한다. “오히려 그들과의 화해보다 개별화의 근원 같은 우선순위의 사고는 자아의 격리된 부분의 소유권 감각의 위조로 창조된다 [31].” 라캉에게 위조는 망상의 주체로 이야기된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세미나XI’에서 ‘확신하는 주체’에 대해 말한다 [32] “이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확신하는 주체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에서 시작된 근대의 주체로 상정된다. 세미나XI에서 라캉은 “데카르트는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의해 생각하는 일을 확신한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말한다 [33]. 데카르트의 주체는 ‘나는 생각한다’로부터 생겨나지만,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주체는 ‘나’가 그 장소에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각한다’ 것도 ‘말한다’는 것도 ‘나’는 아니며, 무엇인가 ‘나’ 대신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나’는 분열의 ‘나’이고 몇 개의 ‘나’일 수 있다.

데카르트의 ‘나’가 등장한 후에 ‘나’는 정신분석에서 주체로 불려진다. 왜냐하면 단정적이고 확신하는 ‘나’는 사라지고 변화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라캉 정신분석은 분석주체(피분석자)를 라캉은 프랑스어로 ‘아날리장 (analysant)’으로 부른다. 이것은 형용사적 의미로 분

석주체가 분석을 받으면서 계속 고정점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의식의 주체는 이전에 있는 주체다. 그 곳이 있는 장소는 무의식의 영역이고 그 곳이 주체의 본거지이다.

벤베누토는 말하기를 “욕망하는 존재는 존재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34],” 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존재하는 동안에 적어도 몇 번은 무의식 속에 있다. 그의 방정식이 성립된 것은 그가 언어의 노동에 빠졌기 때문이다. 라캉은 프로이트를 소환하여 데카르트에 대해 언급한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은 자신의 주체이고, 모든 선행하는 지식을 거절하는 일이라는 것, 이 일 밖에 몰랐습니다....우리들은 프로이트 덕분에 무의식의 주체가 나타나고, 확신에 이르기 이전에, 이것을 생각한다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35].

데카르트는 사유의 방법으로 언어의 노동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그는 회의적인 방법의 사유로 인해 주체를 상실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는 사유의 방식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캉은 에크리에서 데카르트를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명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나는 생각한다든 것은 논리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다 더 지속 가능하지도, 더 지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자율적인 자아로 가정됩니다 [36].

데카르트가 라캉의 추론대로 나는 생각한다 와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가 없다면 데카르트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1946~)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연설에서 과도하게 사용한다. 마치 언어의 노동의 포로 같다. 그의 연설을 인용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지식인들이 편견으로 가득 찬 시골뜨기, 패배자라고 경멸하는

당신... 나는 당신의 나르시시즘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언어의 사용은 특수한 나르시시즘을 낳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청중은 또 다시 언어의 노동에 종속된다. 트럼프에게 매료되어 청중의 욕망은 트럼프의 언어의 유혹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언어의 진리는 이미 몰래 드러나 있다.

라캉은 에크리에서 나르시시즘에 대해 말하기를 “현실과 이상과의 환상적 일치체를 통한 이러한 불협화음의 해결은 나르시시즘적이고 자살적인 공격의 상상적 매듭의 깊이까지 공명할 것입니다 [37].” 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유죄에 해당된다. 트럼프는 누구인가? 그의 연설에 왜 열광해야 하는가? 라캉은 이와 관련하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 1769~1821)에 대해 몇 번 인가 세미나에서 언급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인가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자신이 나폴레옹이라고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8].” 우리가 전쟁의 영웅으로 알고 있는 도나파르트는 자신을 믿지 않았다. 라캉은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VII’에서 욕망과 유죄를 연관시킨다. 우리의 진짜 죄는 욕망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① Avez-vous agi conformément au désir qui vous habite?

당신은 당신 안에 살고 있는 욕망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39].

② Je propose que la seule chose dont on puisse être coupable, au moins dans la perspective analytique, c’est d’avoir cédé sur son désir.

나는 적어도 분석적 관점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욕망에 굴복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40].

라캉 정신분석은 선고한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유죄이다. 또한, 그들의 욕망의 근원에 있는 대의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유죄이다. 더불어 언어의 노동에 빠진 인간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VI. 결 론

우리는 네 가지 관점으로 언어의 노동에 탐닉하는 주체를 조명했다. 본고의 논점은 언어의 노동에 남겨진 부

분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라캉이 주목한 것은 여분의 언어이다. 2장에서 유명한 문장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다.”는 여분의 언어에 대해 암시한다. 어디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언어의 주체를 라캉은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라캉이 비판하는 인본주의 상담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본주의 주장은 인간은 누구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창조적인 능력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상담사는 자아를 강화하여 더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고 비대칭적인 관계자로 내담자를 도와준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곳에 정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 명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어떤 누구이다.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계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논증에서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의 문장을 인용하였다. 언어의 노동은 단순함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과거에도 현재, 마찬가지로 미래도 여전히 언어의 노동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되풀이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까다롭게 물어야 한다. 프로이트의 말을 다시 떠올리자. 실제로 아침별과 저녁별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여분의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찰해야 한다. 라캉 정신분석은 여분의 남아있는 언어의 미완성을 계속 추궁한다. 프로이트가 왜 농담, 제담, 꿈, 실착행위 등에 집중했는지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

세 번째 논증에서 필자는 안티고네를 언어의 노동에 맞서는 존재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계통 발생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었다. 그녀의 위대한 점은 자신에게 고집스러웠던 것이고, 법체계의 현실에 저항하는 주체였다. 안티고네는 라캉의 욕망과 법의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보여준다. 라캉은 욕망과 법을 동일 선상에서 위치시킨다. 법체계의 위반은 욕망을 발생시킨다. 만케는 ‘도덕의 비극에서’ 말한다. “도덕적 비극, 강력한 법은 비극을 만든다.” 그녀는 삶의 경계에서 실존했던 소포클레스 비극의 생생한 일화였다. 안티고네 두 법 사이의 모순이다. 그녀는 경계에 있다. 또한 안티고네는 사랑과 숙명의 같은 선상에 존재했다. 그녀는 법의 언어에 노동하지 않았다. 프로이트에게 오이디푸스가 있다면 라캉에게는 안티고네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데카르트를 통해 라캉이 주장하는 ‘확신하는 주체’를 분석하였다. 데카르트는 확신에 찬 나머지 기표의 과다를 범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준 산물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우리에게 확신하는

나를 제시하였다. 적어도 그는 무의식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필자는 라캉 정신분석에서 언어의 노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라캉 정신분석의 윤리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라캉 정신분석의 윤리는 과거의 고정된 윤리를 따르는 목적의 윤리가 아니다. 그는 여분의 윤리에 집중한다. 언어의 노동에서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남아있는 윤리를 라캉은 드러내 보인다. 알렌카 주판치치 (Alenka Zupančič; 1966~)는 ‘실제의 윤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윤리학은 우리의 행동이 윤리적 보편성에 부합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조건만으로는 윤리적 차원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윤리는 보편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은 ‘동물농장’에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윤리는 공리주의의 윤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동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노동에서 저항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 윤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모든 윤리는 잉여의 윤리로 남아야 한다. 우리가 많은 동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윤리가 완성된다면 그것은 언어의 노동을 다시 하는 것이다. 라캉 정신분석의 윤리는 잉여의 윤리를 표지한다. 잉여의 윤리는 주이상스이다. 따라서 언어의 노동과 주이상스는 같은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연구는 언어와 주이상스의 관계로 보충될 것이다.

References

- [1] D. S. LEE, “Signifiant and Lacan Psychoanaysis Narcissism of Repetition and Reflection”, JCCT Vol. 7, No. 4, pp. 76, November 30,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DOI : <http://dx.doi.org/10.1770/JCCT.2021.7.4.137>
- [2] D. S. LEE, “The Lost Das Ding and A Posthumous Subject of Lacan’s Psychoanalysis–Mugunghwa Flowers Do Not Bloom –”, JCCT Vol. 8, No. 5, pp.133, Sept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127>, p133
- [3] Jacques Lacan, *Television*, Transl. D. Hollier, R. Krauss, and A. Michelson, New York &

- London: W.W.Norton & Co, 1980, p.23.
- [4] BENVENUTO Sergio, *Conversations with Lacan: Seven lectures for understanding Lacan*, Routledge, 2019, p2.
- [5] Jacques Lacan, *Le triomphe de la religion: précédé de Discours aux catholiques*. (No Title), 2005, p18.
- [6] Jacques Lacan, *The Agency of the letter in the Unconscious or Reason Since Freud*, *Écrits : A Selection*, Transl. Alan Sheridan,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77, p166.
- [7] Butler Judit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36.
- [8] Butler Judit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37.
- [9] NIETZSCHE, Friedrich Wilhelm; JAMES, William. *Beyond good and evil: selections. Pragmatism: selections*. (No Title), 1956, pp99–100.
- [10] Philippe Julien, *Jacques Lacan's return to Freu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 p38–39.
- [11]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 rev. ed., P. M. S. Hacker and Joachim Schulte, trans. G. E. M. Anscombe, P. M. S. Hacker and Joachim Schulte (Malden, MA:Wiley Blackwell, 2009), §217
- [12] Meinecke, Friedrich. *Aporismen und Skizzen zur Geschichte*. Leipzig, *Aphorisms and sketches on history*. Leipzig: Koehler und Amelang, 1942, p86.
- [13] Immanuel Kant,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In *Practical Philosophy*, Edited and translated by Mary J. Greg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221.
- [14] BENVENUTO Sergio, *Conversations with Lacan: Seven lectures for understanding Lacan*, Routledge, 2019, p146.
- [15] 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ennis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éminaire, Livre VII*, W.W. Norton & Company, 1992, p315–316.
- [16] BENVENUTO Sergio, *Conversations with Lacan: Seven lectures for understanding Lacan*, Routledge, 2019, p45.
- [17] Slavoj Žižek, *For The Know Not What They Do: Enjoyment as a political Factor*, London:Verso, 2000.
- [18] Martin Schulte, *The law of the unconscious in legal discourse: Basic lines of a psychoanalytic legal theory after Freud and Lacan*. Berlin: Duncker and Humblot, 2009, p52.
- [19] Slavoj Žiž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Verso, 1989, p29.
- [20] Menke, Christoph. "Autonomy and Liberation." *German journal for philosophy* 58, no. 5, 2010: 681.
- [21] 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ennis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éminaire, Livre VII*, W.W. Norton & Company, 1992, p297.
- [22] Butler Judit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37.
- [23] Copjec, Joan. *Imagine there's no woman: Ethics and sublimation*. MIT Press, 2004, p41.
- [24] Butler Judit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87.
- [25] Butler Judith, *Giving an Account of Oneself*, New York : Fordham University Press, 2005, p136.
- [26] Jacques Lacan, *Encore,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X*, Ed. Jacques-Alain Miller, Transl. Bruce Fink, New York: W.W.Norton & Co, 1998, p21.
- [27] Jacques Lacan. "ÉCRITS", tr.by Fink, New York-London : WW. Norton & Company, 2006, p708.
- [28] Jacques Lacan, 2005, *Le triomphe de la religion*, Seuil, Paris. Eng. trans. *The Triumph Religion, Preceded by: Discourse to Catholics, Polity*, Cambridge, 2015, p76.
- [29] Jacques Lacan, *Autres écrits, Other writings*. Seuil, Paris, 2001, p506.
- [30] Jean Paul Sartre, *Family Idiot. Gustave Flaubert 1821–1857*,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1, p109
- [31] Maria Balaska, *WITTGENSTEIN AND LACAN AT THE LIMIT, From Groundlessness to Creativity: The Merits of Astonishment for Lacan*, palgrave macmillan, 2019, p148.
- [32] Jacques Lacan, Jacques-Alain Millet 『Jacques Lacan Seminar 11』, Translated by Maeng Jeong-hyeon and Lee Su-hyeon, New Wave: 2008, p60.
- [33] Jacques Lacan, Jacques-Alain Millet 『Jacques Lacan Seminar 11』, Translated by Maeng

- Jeong-hyeon and Lee Su-hyeon, New Wave: 2008, p61.
- [34]BVENUTO Sergio, Conversations with Lacan: Seven lectures for understanding Lacan. Routledge, 2019, p62.
- [35]Jacques Lacan, Jacques-Alain Millet 『Jacques Lacan Seminar 11』, Translated by Maeng Jeong-hyeon and Lee Su-hyeon, New Wave: 2008, p63.
- [36]Jacques Lacan, *Identificatio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X*, Transl, Cormac Gallagher, unpublished, Session 1: 15.11.61.
- [37]Jacques Lacan, ÉCRITS, Translated by Fink, New York·London : WW. Norton & Company, 2006, p153.
- [38]Jacques Lacan, ÉCRITS, Translated by Fink, New York·London : WW. Norton & Company, 2006, p172.
- [39]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ennis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éminaire, Livre VII, W.W. Norton & Company, 1992, p314.
- [40]Jacques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translated with notes by Dennis Port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Séminaire, Livre VII, W.W. Norton & Company, 1992, p319.